

# 世界經濟展望과 經營戰略



閔 玉 仁

<京畿大 經濟學教授>

## 1. 끈질긴 인플레이와 不景氣

世界的인 인플레이와 不景氣의 複合作用 속에서의 緊張과 不安이 75년의 캘린더를 2月上旬까지 넘기게된 요즈음에도 이렇다 할 緩和나 小康을 보이려 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지난해 1年동안은 허구많은 國際社會의 經濟專門家들의 各種 專門의인 景氣展望이나 各國政府의 景氣回復의 努力을 實로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들고 말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再昨年 10月 4次 中東戰이 오일쇼크를 물고온 뒤를 이은 國際 인플레이와 不景氣가 74年の 1年 동안에 그렇게 끈질기게 激化一路의 상황일 것을 豫測, 發表하여 結果的으로 的中시킨 經濟專門家は 없었고 또 인플레이와 不景氣 退治를 위해서 안간힘을 다해온 세계 여러 나라들이었지만 所期의 成果를 거두었다고 自他共認할 만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豫想한 專門家가 없었고 各國의 政策效果를 너무도 작게 만들어 버린 74年の 인플레이와 不景氣이었다. 그리고 74年の 그같은 不幸을 이어받은 75年에도 인플레이의 昂進程度가 前年보다 약간만은 낮아질 것이란 期待가 擡頭되고 있을뿐 人類最大의 厄年이라고 國際經濟機構등에서 諦念의 소리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74年の 世界經濟가 겪어온 苦難의 歷程과 依然히 艱難하기만 할 것같은 75年の 前途를 돌아보고 또 展望케 하는 統計들은 別項으로 몇가지 추려보기로 한다. 貿易收支, 失業趨勢, 經濟成長 등을 例舉한다면 貿易黑字를 相當히 많이 올린 나라. 西獨을 例外로 하고는 모든 先進國들이 赤字貿易에 當황하고 있다. 하기는 西獨도 貿易에서만은 黑字이었으나 國

際收支의 赤字임을 뚫지 못하였다. 한편 失業者는 美國을 筆頭로 하여 先進各國에서 例外 없이 늘어나고 75年度의 展望 또한 지난해 이 時點에서 74年の 1年을 展望한것 보다는 훨씬 悲觀的이다. 다만 昨年 봄에 世界 經濟專門家들이 74年の 인플레이와 不景氣를 過小豫想하였기 때문에 그들 豫測의 信憑性이 結果의으로 過去 어느때 보다는도 땅에 떨어졌고 今年 1年의 經濟展望에는 或은 지나칠 程度의 慎重性마저 보이고 있음을 考慮에 넣기는 하여야 할 것 같다. 다시 말하자면 專門家들의 그러한 態度에서의 言行이 75年度의 經濟展望에 대해 昨年 봄과는 對照的으로 不透明度를 加算시키고 있는 것이다.

## 2. 景氣循環時差와 스태그플레이션

앞으로 世界景氣가 回復될 時期에 대한 豫測은 區區不一致하고 있지만 한가지 留意해야 할 것은 先進國들에서 景氣가 回復될 時點보다 우리나라의 그것은 늦어지게 마련인 事理이다. 또 이같은 時差는 不景氣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昨年 中에 있어서 우리의 經濟成長, 輸出增加 등이 모두 先進諸國에 比해서는 異例的인 成果를 거두었던 것이다. GMP 成長 8.2% 輸出增加 47%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世界的 不景氣가 果然 언제쯤 回復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알 일이지만 今年 上半期 中에 回復期에 들어갈 것이란 專門家들의 豫測은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 下半期부터란 것을 中心으로 해서 來年 上半期 以後의 回復說甚至於是 明年에 이어 몇해동안 不景氣가 長期化 되리라는 悲觀論까지 없지가 않다.

아무튼 실사 先進國의 景氣가 今年 下半期에 回復過程에 접어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에 波及되는 것은 (約 半年間의 時差가 있을 것으로 출잡아서) 來年 봄 부터의 일로 생각해야 할것이 아닌가 한다. 景氣回復의 時期를 豫想하는데 있어서 希望的으로 앞당겨 생각하는 것이 禁物이며 특히 企業計劃의 경우에 그러하다. 勿論 1個人의 生活을 營爲함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1企業의 立場은 일단 그 蹉跌의 波高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거의 1年동안인 75年の 한해 동안에는 우리가 美·日 및 其他 先進國들보다도 많은 不景氣試鍊을 겪어낼 覺悟를 깊이 하여야 할 것 같다. 다시 말하면 美·日 등 先進國들이 74년에 當해은 不景氣의 苦難을 우리는 75년에 그 大部分을 지뤄야 할 계제로서 이는 위에서 言及한 不景氣의 時差 때문이다.

또 이 機會에 吟味되어야 할 것이 景氣循環에 對한 機敏한 對策이라 생각한다. 元來 景氣現象은 循環過程의 現象으로서 景氣와 不景氣 등이 無期限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期間이 不規則的이기는 하나 交替循環을 하게 마련이다. 즉 景氣循環過程은 ① 好景氣 ② 恐慌 ③ 不景氣 ④ 景氣回復의 4局面으로 또는 回復—好況—衰退—不況의 4局面으로 나뉘는데 이와같은 景氣循環을 通해서 資本主義는 發展向上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景氣變動이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는 必然的이며 이 景氣循環에 智慧롭게 適應하는 것이 企業經營의 妙인 것이다. 그러므로 不景氣를 企業發展의 한 契機으로 삼을 수 있는 企業態勢가 항상 갖추어져 있어야 할 일이다.

① 段階에서 ② 段階에 즉 好景氣에서 恐慌에 건너 서기 前인 好不景氣의 下半期 初부터 企業은 過剩施設과 過剩生産을 警戒하여야 하며 그와 對照的으로 施設과 生産을 積極的으로 해서 좋은 것은 ④ 段階(景氣回復)의 上半

期初부터 이다.

들이켜 본다면 1930年代의 世界大恐慌은 世界經濟政策의 一大轉換을 招來시킨 歷史的 誘因이었다. 20年代까지는 經濟的 自動調節機能이 크게 作用함으로써 不景氣의 深刻度와 長期化가 스스로 調節되고 防止될 수 있었다. 그러나 30年代에는 그 自動調節機能이 弱화되어 恐慌의 度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恐慌—不景氣의 長期化 現象을 가져왔다. 때문에 各國의 政策이 景氣回復에 積極的인 介入을 하게 된 것이고 그 主된 手段은 財政에 依한 景氣浮揚이다. 政策이 金利, 支準率, 用途選別 등 貨幣的 量的面 그리고 用途에 介入하는 金融政策만으로는 不景氣에 對處하기가 힘들게 된 것이다.

財政에 依한 景氣浮揚이 일단의 成功은 거 뒤왔으며 그는 2次大戰後의 景氣變動幅이 좁아진 것으로 立證되었다. 그러나 73年 10月부터의 오일쇼크가 몰고온 不景氣는 體質이 달라진 것을 말해주고도 있다. 例를 들자면 74年頭(曆年)부터 美國의 財政은 勿論 金融動員을 併行하여 景氣浮揚의 積極政策을 取해 보았지만 그는 失敗作으로 決算되고 말았다. 즉 그같은 景氣浮揚策이 인플레이 助長이 될 뿐이었으므로 不過半年에 需要抑制政策으로 轉進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오늘날 世界的 不景氣가 體質的으로 過去의 不景氣와 달라진 것은 「스테그플레이션」이란데 있다. 不景氣가 되면 物價는 싸지게 마련인데도 不拘하고 73年 겨울에 시작된 이번의 不景氣는 所謂 스테그인플레이션이란 「不況下의 物價高」이다. 그 때문에 財政 또는 財政·金融의 兩面動員으로 投資와 生産을 積極化할엔 인플레이를 부채질하는 結果가 되는 것이 美國에서 例示되었다.

### 3. 世界的인 貿易赤字와 失業增大

인플레이와 不景氣의 접지기 受難을 克服해 나가는 것의 어려움은 각별하다. 資源保有國들과 그(資源) 消費國들이 利害相反 상황下에서는 資源保有國이 有利한 立場인데다가 經濟外的인 原因도 作用하고 있다. 資源消費國들은 輸入資源의 價格調節을 할 수 있는 與件이 아니기 때문에 輸入品 關聯의 인플레이는 거의 束手無策이다. 뿐만 아니라 景氣를 浮揚시키기 위해서 資金의 放出을 積極的으로 하면 그럴수록 인플레이는 上昇(前記한 美國의 例)하고 만다. 그런가 하면 인플레이 抑制政策의 強行은 곧 不景氣追加 政策이라는 것이 難題로 登場한다.

이리도 저리도 하기 어려운 고비에서 世界各國은 제나름대로의 對 인플레이 및 不景氣의 突破口 模索挑戰을 하고 있는데 苦戰의 連續일 뿐이다.

먼저 74年度의 先進 몇個國의 貿易赤字 實態를 본다면 美國이 30億弗, 日本은 65億弗(73年 138億弗), 佛蘭西 36億弗, 伊太利 70億弗 등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西獨만이 唯一한 貿易黑字國인 것이다.

그리고 失業統計가 또한번 눈살을 찌프리게 한다. 즉 美國은 74年末 現在 71%에 該當하는 650萬名이고 75年 1月에는 8.2%인 752萬 9千名에 上昇, 74年來의 記錄이다. 日本은 同政府의 經濟企劃廳推計로 約 100萬名이고 西獨은 75年 1月末 現在 5.1%인 115萬名, 74年 11월에 74萬이었던 英國도 75年 중에는 100萬名을 突破할 것이라 豫想되고 있는 것이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經濟는 輸出主導型으로 過去數年間に 크게 成長해 왔으며 美·日

兩國이 주된 輸出對象國인데 市場多邊化 政策에 따라서 유럽은 美·日에 버금하는 輸出擴大 地域으로 손꼽지 않을 수 없는 廣域市場이다. 그런데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美·日兩國 그리고 유럽 地域의 先進國들이 모두 貿易收支의 大幅赤字와 失業增大에 허덕이고 있으며 오직 西獨만이 高率 貿易黑字의 74年(73年보다 一步前進)을 記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일단 75년에는 우리의 輸出對象國中의 大部分의 나라들에 대해 物量으로는 韓國 商品의 需要增大을 크게 期待하기 어려울것 같다. 다시 말하자면 世界的으로 物價가 계속 上昇할 것이므로 金額으로는 75年度의 輸出이 74年度보다 相當히 많이 늘어났지만 物量增大에 지나친 期待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 4. 輸出增進과 內需節約

前述한 바와 같이 앞으로 世界的인 不景氣가 回復될 때까지는 輸出與件의 惡化狀態가 持續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一時的으로 더욱 惡化될 可能性이 全然 없는것도 아니다.

失業의 增大과 世界的으로 짊어져가는 消費節約의 風潮 등이 모두 輸出需要의 沮害要因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새로운 構想과 努力으로 輸出增進에 最善을 다해야 할 切實性은 우리의 經濟開發의 段階性에 있다. 3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中央의 時點을 겨우 넘기고 4次 5個年計劃이 77년부터 시작될 터로서 幅넓게 展開되고 있으며 또 展開해야할 開發의 前進 速度가 쉽사리 늦추어질 수도 없는 段階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開發을 위해서 이미 많은 外資가 導入되었고 앞으로의 開發을 계속하는데 所要되는 巨額의 外資導入을 하지 않으면 아

니된다. 이와같은 外資들의 元利金 償還을 하는 財源의 追求가 主로 輸出增進에 두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外貨의 消費節約을 通한 國際收支의 惡化防止가 輸出增進과 다른없는 效果를 招來한다는 三尺童子의 常識을 새삼 肺腑에 새겨 보는 轉機意識이 아쉬워졌다.

生産 原資材를 國產化시키기 위해서 政府는 多角의인 施策을 追加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貿易金融의 弗當支援額을 國產源資材에 두텁게 하고 또 金利의 差를 두고 있는 것도 그것이다. 더우기 內需用 生産原資材의 需要 減縮은 外貨節約과 直結되는데 內需製品의 生産原資材가 高率 輸入依存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國民的인 消費節約의 實踐으로 輸出用 外貨節約의 效率를 比較的 크게 올릴수 있다.

#### 5. 統合·獨創의 需要開發등 經營刷新

以上으로써 알 수 있듯이 輸出需要가 늘기 어려운 要因으로 ① 輸出對象國들의 인플레이와 不景氣로 말미암은 消費萎縮 ② 輸入規制 政策의 強化 ③ 失業增大에 따른 需要減退 ④ 消費者들의 節約運動 등이 複合되어 있으며 한편 內需部門도 인플레이, 不景氣 그리고 일기 시작한 消費節約의 自覺등이 招來시킬 需要減退를 經濟開發 需要增大가 相當히 많이 카버할 수 있을 것이기는 하나 商品分野만을 본다면 顯著的한 消費萎縮이 不可避할 것 같다. 一般市場과 商街는 陽曆年末부터의 계속적인 賣上不振이고 昨年 12월에 대단한 活氣를 보이었던 百貨店까지도 새해 1月 不況과 2月の 舊正景氣가 甚한 沈滯인 것은 今年 中 內需商品의 需要減退를 벌써 實感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國內外 與件下에서 企業이 取해야 할 經營方向등이 그 業種 및 其他의 狀況如何

에 따라서 相異할 수 밖에 없지만 大體로 普遍妥當性이 있는 例들을 들어본다면 ① 그룹內的 企業統合이 企業自體의 自律的인 措置로 이루어지는 한편 政策에 依한 中小企業의 系列化·專門化가 推進實現되어야 하고 ② 메이커의 경우 코스트 切下에 특히 重點을 두는 經營合理化를 追求하되 減員이 따르지 않게 함으로써 景氣回復後의 人力問題도 自繩自縛의 結果가 되지 않도록 留意하며 ③ 獨創的인 需要開發로 오리지날 商法의 妙를 發揮하고 ④ 廢棄物의 再生産으로 實利時代에 들어선 消費者心理에 迎合하는 企業의 機敏性을 잃지 않아야 하며 ⑤ 稀少價値 意識이 돈많은 사람들의 消費慾 속에 크게 자리잡고 있던 過程은 대개의 경우 일단 停頓되었음을 모든 企業運營에 反映하여야 할 時期에 이르렀다.

위에 列擧한 몇가지가 모두 現段階에 있어서 不景氣에 對處하는 企業의 姿勢이고 또 景氣回復에 對備하는 企業經營戰略이 될수 있는 部分도 많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아직 이렇다 할 進展을 보인것은 적다. 즉 첫째로 그룹內的 企業統合 實現은 겨우 몇손가락을 꼽을 수 있을 程度이고 中小企業의 專門化·系列化는 오늘날 인플레이 및 不景氣의 對策이기 以前의 中小企業에 對한 政府의 既定政策이다. 다만 意外로 世界的인 인플레이 및 不景氣가 격심하게 그리고 길게 끌고 있으므로 中小企業의 專門化·系列化의 必要가 더한層 時急하고 切實해진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그같은 中小企業의 體質改造作業은 龐大한 資金이 所要되는 것을 主로 해서 大小의 隘路가 겹치게 되어 있어 短期間에는 所期 成果를 거둘수 없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獨創的인 需要開發이 全然없다고 할

바는 아니나 지금부터의 일이다. 우리 나라의 不景氣가 先進國들에 있어서의 그것보다는 相當한 時差를 두고 來襲하였기 때문에 獨創的인 需要開發의 不可避性을 企業界가 先進國들의 企業界처럼 느끼지 않고서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 廢棄物의 再生, 販賣는 가까운 日本에서도 盛行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벤 강통 및 其他에 걸쳐 이미 多種多樣化 하였고 나아가 無限의 擴大可能性을 보이고 있다. 製品을 팔면서 그 需要者의 廢棄品을 引受하는 條件으로 二重의 장사를 하게 되므로 業者와 消費者의 利害가 完全一致의 狀態이다. 지난 날엔 무엇이랴도 新品이라야 消費者 앞에 내놓을 수 있고 또 新品中에서도 流行에 맞는 것이 消費者를 滿足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벌써 그같은 奢侈의 時代, 虛榮의 世상이 아니게 되었다. 실속을 찾는 消費者들이 되고 만 것이다. 원래 물건은 파는 물건이 아니고 팔리는 물건이어야 한다. 廢棄品이라 하여 버리지 말고 再生産하여 한바퀴 더 써먹는 리사이클링의 商法을 採擇하는것은 景氣가 나쁘고 消費者들이 心理的으로 節約하려하는 時期에는 業者로서의 賢明한 態度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消費者의 節約意識의 進度가 遲遲不進 한편인 것은 8. 15解放을 戰勝國의 立場에서 맞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解放直後부터 어느時期까지 美國의 無償 援助를 많이 받았으며 그後는 줄곧 借款景氣, 經濟開發景氣등 連續되는 景氣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不景氣의 쓰라림을 모르고 지내왔었다. 日本人들이 하루아침에 經濟大國의 陶醉에서 決然히 깨어나서 節約生活로 轉換된것은 2次大戰終結後 數年間 극심한 貧窮을 맛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